

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최 병 두**

Urban alienation and the just city*

Byung-Doo Choi**

요약: 이 논문은 소외에 관한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의 특성들을 르페브르의 소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를 통해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와 토지(즉 생산수단)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했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과 이를 심화시키는 기술 및 농업의 발달과정을 동반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탈산업사회의 도시적 소외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 및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화 과정을 통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확장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소비와 여가 부문과 비물질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과정으로 인해 도시 공간과 경관(스펙터클)으로부터 소외도 심화되었다. 이 논문은 끝으로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탈소외된 도시 공간으로서 정의로운 도시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탈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핵심적 실천 전략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따라 탈소외된 도시로서 정의로운 도시가 어떻게 전망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주요어: 도시적 소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노동의 소외, 소외의 시공간적 확장, 탈소외, 도시권, 정의로운 도시.

Abstract: This paper is to reconsider some characteristics of philosophical discussion on alienation, especially focusing on Lefebvre's concept of alienation, and then to conceptualize a number of features of alienation in both industrial and postindustrial capitalist cities.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modern city in industrial capitalism has brought about alienation from nature and from land(i.e. means of production), and in these contexts, has generated alienated labour of urban labourers, which has been deepened through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ies and divisions of labour. The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to postindustrial society can be seen not as alleviating but as further intensifying and expanding process of alienation. Urban alien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y has been spatially and temporally extended through processes of glocalization and of financializ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redit system. It also has been widened to fields of consumption and leisure and to spheres of non-material production, and has get more deeply involved in capital circulation through built environment and landscape(or spectacles) of cities. Finally this paper is to re-examine briefly theoretical discussions on dealienation in order to conceptualize the just city for dealienation of labour and of urban spac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as practical strategy of urban dealienation, and to suggest further three kinds of justice for the just city, that is, justice for distribution, for production and for recognition.

Key Words: urban alienation, alienation from nature, alienated labour, spatial and temporal extension of alienation, dealienation, the right to the city, the just city.

“도시적 소외는 소외의 다른 모든 형태들을 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지속시킨다”
(Lefebvre, 2003, 92).

1. 서론

오늘날 도시인들은 점점 더 깊어가는 소외 속에

서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도시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소원한 외적 힘에 의해 점점 더 강하게 억압된다는 느낌을 가진다. 도시공간에서 우리는 이러한 압박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공간적 병리현상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물론 현대 도시 공간에서 나타

* 이 논문은 한국공간환경학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움,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2016.6.24)에서 발표된 원고를 확대·수정된 것이다.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bdchoi@daegu.ac.kr)

나는 소외의 현상과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저임금 노동(실질임금의 저하)과 고용 불안(실업과 비정규직화), 세분화된 분업과 고도화된 기술에 의한 통제(탈속권화), 점점 심화되는 소득·자산의 양극화, 광고와 대중매체들에 의해 강제되는 과시적 소비, 급증하는 부채와 투기적 부동산·금융자본의 압박, 낮은 도시 경관과 인위적으로 조작된 도시 문화, 그리고 빈번한 재해와 자연으로부터 거리감, 이들 모두는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외를 유발하는 요소이거나 그 현상들이다. 도시적 소외를 유발하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원인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현대 도시가 직면한 위기의 한 면은 자본축적의 모순에 따른 경제적 위기라고 한다면, 도시 위기의 또 다른 면은 점점 심화되는 소외로 인해 도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된 사회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소외에 관한 이론적 철학적 논의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초기 저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콕스, 2009; 무스토, 2011). 이들은 소외를 인간 노동과 관련된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했지만, 후기 저술들에서 마르크스는 소외의 개념 대신 상품의 물신성 개념을 강조했으며, 이 개념은 루카치의 사회적 물상화 개념에 반영되었다. 이들의 소외론은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에 의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 즉 경제적 측면의 소외에 초점을 두었다.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의 초기 저서와 하이데거의 후기 연구에서 제시된 소외의 개념을 결합시키고, 생산영역의 소외된 노동과 상품 물신화와 관련된 개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이며 특히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영역들로 확장된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프랑크푸르트 학파(특히 마르쿠제와 프롬)도 소외의 개념을 인간의 보편적 조건 또는 일반적 감정으로 이해했으며, 포스트모던 사회이론가들(드보르, 보드리야르 등)도 소외의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만연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와 관련시켜 연구했다는 점에서, 소외는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철학자 및 사회이론가들의 연구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외를 이론화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도시적(그리고 공간적) 배경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르페브르의 소외 연구가 가지는 유의성 가운데 하나는 그의 소외 이론이 명시적으로 오늘날 도시를 배경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사적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소외에 관한 논의는 1960~1970년대에 정점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 철학자나 사회이론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소외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멀어진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Yuill, 2011),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소외 현상이 완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소외는 자본축적에 내재된 모순과 위기들로 인해 계속 확대·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소외의 개념이 1970년대 후반 이후 왜 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는가라는 의문과 더불어, 소외의 도시적 양상이나 그 배경에 관한 논의도 그 이후 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르페브르가 소외 현상이 자본주의 도시화에서 우선적으로 유발되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연구가 정점을 이루었던 1970년대에는 명시적으로 ‘도시 소외’를 다룬 여러 논문들도 발표되었다(Seeman, 1971; Fischer, 1973 참조)¹⁾. 물론 당시 도시 소외에 관한 일반 연구는 소외 현상들이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도시 그 자체가 소외를 유발하는 결정적 장 또는 매체가 된다는 점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소외 현상과 이에 관한 개념이 새롭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르페브르 이론에 대한 지리학자 및 도시 공간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예로 Fraser, 2015), 다른 한편으로 탈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유형의 소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점에서, 하비(2014, 104)가 ‘보편적 소외’(universal alienation)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직접 빚어낸 야만에 넌더리를 내며 외면함에 따라 보편적인 소외감이 훨씬 위협적인 수준으로 증폭하고” 있다. 물론 하비가 소외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본축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성이 결집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소외의 개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하비, 2014, 387).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소외에 관한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의 특성들을 르페브르의 소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르페브르(Lefebvre, 2003, 32)는 “도시적 소외는 소외의 다른 모든 형태들을 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지속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를 통해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하비가 주장한 바와 같이, 소외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성을 결집하여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 탈소외된 도시 공간으로서 정의로운 도시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탈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르페브르와 하비가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핵심적 실천 전략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탈소외된 도시로서 정의로운 도시가 어떻게 전망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소외의 개념과 발달 과정

소외는 철학적 개념이며,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주요한 (그러나 때로 잘못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문예비평 등 인문학과 정치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이론 분야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외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분야들에서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우리는 우선 르페브르의 개념 정의를 통해 소외란 무엇인가를 예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벌거벗겨져 그 자신의 바깥으로 내쫓긴 인간은 어떤 힘, 사실 인간에서 시작했으며, 인간이지만 찢겨져 탈인간화된 힘의 자비에 내맡겨져 있다. 이러한 소외는 **경제적**(노동의 분업, ‘사적’ 소유, 경제적 물신들 즉 화폐, 상품, 자본의 형성), **사회적**(계급의 형성), **정치적**(국가의 형성),

이데올로기적(종교, 형이상학, 도덕적 교리)이다. 소외는 또한 **철학적**이다. ... 사유적(형이상학적) 용어로, 철학 자체가 인간 소외의 일부이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소외를 통해서만 발전한다(Lefebvre, 1991a, 249; 원문 강조).

이 정의에 의하면, 소외란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내었지만 탈인간화된 힘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 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는 사회의 모든 부문들, 즉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부문들, 그리고 심지어 철학적 사유 자체도 인간의 보편적 소외의 일부로 이해되며, 나아가 인간 자체는 소외된 존재로 규정된다.

이러한 소외의 개념은 영어의 어원으로 보면 이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소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외(alienation)의 동사형 alienate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법률 용어**로 이는 재산권을 다른 사람의 소유로 양도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로서, 이는 애착, 충성심, 신뢰가 어떻게 한 사람, 제도 또는 정치적 대의에서 다른 사람, 제도, 정치적 대의로 넘어 가는가(이전되는가, 옮겨가는가)와 관련된다.... **수동적인 심리적 상태**로서, 소외는 어떤 가치 있는 연결 상태에서 고립되고 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능동적인 심리적 상태**로서 소외는 억눌리고 빼앗긴 상태나 느낌 때문에 분노하고 적개심이 가득하며, 이 분노와 적개심을 몸으로 표출하는 ... 상태를 의미한다(하비, 2014, 267; 원문 강조).

이러한 소외 개념의 어원²⁾과 그 유형들로 보면, 전자의 두 유형에서 소외란 재산권의 법적 양도나 사회적 관계에서 정체성의 변화와 관련되며, 후자의 두 유형에서 소외란 수동적 또는 능동적 심리 상태로 상실감이나 고독감, 억압감과 적개심으로 이해된다.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소외의 개념은 어떤 법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와 관련되지만, 이러한 소외는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에서 유발된다. 즉 소외는 한편으로 타자와의 소원한 관계나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한 상실감에 따른 심리적 상태나 사회 제도나 관계 자체와 관련되지만, 그 근원은 특히 자본축적에 내재된 모순 또는 자

본주의의 확대재생산에 의한 사회의 지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이흥균, 2002). 이러한 점은 소외에 관한 이론의 기원을 이루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저작들,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사회이론가들과 철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외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헤겔(Hegel)과 마르크스(Marx)의 저작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정문길, 1978; Ollman, 1976). 헤겔은 소외를 노동의 존재론적 표현으로 대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지만, 마르크스는 소외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과 그 생산물을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노동자들과 적대하는 대상으로 변화한 자본주의의 특정 현상으로 설명했다(안형관, 1990).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외를 인간 노동과 관련된 현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즉 노동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과 관계를 가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역량을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게 된다. 헤겔은 이러한 노동과정을 인간이 그 자신의 본성을 실현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하며, 이 활동은 노동의 대상화(즉 소외)를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그의 초기 저작들 특히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이러한 헤겔의 노동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이에 내재된 긍정적, 관념론적 구조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더 이상 노동자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임금노동 과정에서 이러한 본성을 부정당하고, 이로 인해 노동과정으로부터,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노동하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후기 연구에서는 소외의 개념을 더 이상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대신 상품이나 화폐 등의 물신성(fetishism)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물신성이란 자본주의에서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자체가 마치 그 자체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물신성의 개념으로 인간관계가 사물화되는 과정, 즉 인간의 능력이 상품이나 화폐와 같은 대상에 귀속되고 사회적 관계가 인간 의지와는 무관하게 마치 사물들

간 관계처럼 보이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루카치(Lukács)는 마르크스의 <경제학-철학 수고>가 발견되기도 전에 마르크스 소외론의 헤겔적 기원과 그 영향을 밝히면서, 부르주아 사회에서 인간성과 인간관계가 물건들 간의 성격과 관계로 변화했다는 물상화(reification) 이론을 제시했다(조항구, 1999). 이러한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에서 물신성 개념과 루카치의 물상화 이론이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에서 제시된 소외 이론을 대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상품의 물신성이나 인간관계의 물상화 이론이 소외 연구의 일부라고 강조되기도 한다(무스토, 2011). 이러한 점에서 철학적 의미에서 소외란 우선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 의해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과정과 생산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상품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내재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로 인해 사람들 간 사회적 관계가 상품들 간의 물질적 관계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Heidegger)는 마르크스주의 전통과는 다른 철학적 기반에서 있지만, 소외의 개념에 관한 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헤겔의 영향 하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에서 인간의 소외라고 인식했던 것은 [하이데거가 제기한] 근대인의 고향 상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Heidegger, 1993; 박찬국, 154, 수정 인용). 하이데거의 초기 연구에서도 허구적 주변 세계에 순응하여 주체 상실이라는 점에서 소외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만, 특히 그의 후기 연구에서 소외는 존재의 거주(dwelling) 장소 또는 고향의 상실로 이해된다(Heidegger, 1971). 그에 의하면, ‘장소는 존재의 진리의 현장’이며, 거주하기는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두고, 하이데거는 현대를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친숙하게 낯익은 곳이며 이에 내가 아무런 두려움과 긴장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서의 고향이 오늘날에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향 상실 또는 거주 위기로 이해되는 소외는 자본주의 시장과 기술 관료들에 의해 수행되는 도구적 합리성 또는 추상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소외 개념은 아래에서 논의할 르페브르의 소외 개념뿐만 아니라 예로 아렌트(Arendt, 1958)의 소외 개념, 즉 세계(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와 지구(존재의 거주 공간)로부터의 소외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소외 개념은 경제적, 기술관료적 지배에 대해 유의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대안으로 전통사회의 회귀를 강조하는 보수적 낭만주의의 성향을 보였다.

르페브르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마르크스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재해석하고자 했다. 즉 “르페브르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끌었던 마르크스적 개념들 가운데 하나는 소외”라고 할 수 있다 (Fraser, 2015, 46).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소외의 개념을 간과하거나 경제적 영역에 한정시킨 것과는 달리, 르페브르의 논의는 생산과 임금노동, 소유관계의 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간적 또는 정신적 소외도 포함한다. 특히 그는 후자의 형태의 소외는 “삶의 본질로부터 박탈된 인간 행동의 추상화 증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Lefebvre, 1991a, xxiii).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치의 본질은 추상노동(즉 모든 질적 차이가 박탈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노동)으로 파악되며, 또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화폐 형태(즉 독특한 사용가치를 질적으로 동질화하는 보편적 등가물)로 표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상품화의 확대와 자본축적의 역동성으로 인해 사용가치의 다양성과 사회적 관계의 풍요로움은 교환가치의 동질성과 추상적 노동의 소외에 점차 포섭되었다고 주장한다(Wilson, 2013).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의 추상적 노동 개념뿐만 아니라 추상적 기술관료적 재현에 관한 하이데거의 비평에도 주목한다. 르페브르는 하이데거에 따라, “지구는 인간의 거주지”이며, 진정한 의미의 “거주하기는 본질적으로 시적”(poetic)이라고 주장한다(Lefebvre, 2003, 122). 그러나 그는 오늘날 공간 개념을 특징짓는 추상적 공간은 이러한 ‘시적 특성’이 결여된 공간으로, 양적 측정과 계산에 대한 열망에서 도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경제적 및 기술관료적 지배에 바탕을 둔 공간의 생산은 “거주로부터 제거된 것이며, 이는 기계의 언어가 시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된다(ibid).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임노동에 기초한 생산관계와 작업장의 생산과정에 한정되었던 소외의

개념을 노동 재생산의 장으로서 (도시의) 일상생활로 확장시킨다. 일상생활이란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순환적 시간에 따라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지만 단순히 동일한 활동의 반복이 아니라 유사하면서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을 이중적 관점, 즉 추상화와 생산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소외의 장이면서 또한 변혁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탈소외의 장으로 이해한다. 그는 일상생활의 추상화의 사회공간적 측면을 거주하기와는 대조되는 하비타트(habitat, 주택)의 개념으로 해석한다(Lefebvre, 2003b; Wilson, 2013). 하비타트는 주택부동산과 뉴타운 계획 공간 등에서 전형화될 수 있는 추상공간의 통합적 성분으로, 동질적인 지구계획이나 정량적 공간 설계에 의해 위로부터 부가된 것으로, 체험된 경험이 ‘주거 기계’ 속에 폐쇄된 공간이라고 규정된다. 이러한 공간은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근대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쾌적함을 제공하지만, 그 속에서 ‘거주하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기술관료들은 이러한 도시 개발에서 달성된 삶의 수준을 정량적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겠지만, 인간이 세계와 자연 그리고 그 자신의 본성과 가지는 관계는 이러한 하비타트의 군림과 이른바 ‘도시주의적 합리성’으로는 결코 심층적으로 경험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소외이론은 특히 2가지 측면에서 유의성을 가진다(Fraser, 2015). 첫째, 르페브르는 생애 전반에 걸친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을 재이론화하면서, 경제적 영역에서 나아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들로 확대된 소외를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Shields(2005, 2)에 의하면, “그의 첫 저작에서부터 가장 성숙된 저작들에 이르기까지 르페브르의 연구 전체를 통합시키는 것은 소외에 관한 그의 심원한 관심”이다. 특히 그의 〈일상생활 비판〉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근대성에 의해 지배됨에 따라 소외가 어떻게 경험되고, 마주치고, 수용되고, 타협되며, 요컨대 다중적으로 현시되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소외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자(the other)를 파악하고 생각하기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상생활은 또한 탈소외의

계기가 된다. “소외...에 관한 의식은 우리를 소외로부터 해방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 인간은 소외에 관한 의식을 통해 그 자신을 탈소외시킬 수 있다”(Lefebvre, 1991a, xvi: 20-23).

둘째, 르페브르는 소외의 다면적, 다차원적 형태들을 도시화 과정 및 도시공간의 재현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그는 <도시혁명>에서 소외의 다양한 현상들이 마르크스 시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과정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도시적 소외는 소외의 다른 모든 형태들을 담고 있으며, 이들을 지속시킨다”(Lefebvre, 2003b, 92). 오늘날 사람들은 도시적 맥락에서 영위하는 모든 노동과 일상생활로부터 소외되었다.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은 도시인들을 그들의 외적 관계(자연 및 타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내적 관계(자신과의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르페브르(Lefebvre, 1991b)가 <공간의 생산>에서 제시한 공간의 3원적 유형화(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와 절대공간에서 추상공간 그리고 차별공간으로의 전환 과정에 관한 논의는 도시적 소외가 단지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물질적 과정뿐만 아니라 근대적 도시공간의 재현에 내재되어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르페브르의 소외론에서 특히 유의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 논의에서 소외의 개념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즉 오늘날 소외는 도시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들에서, 그리고 이러한 도시공간의 재현과정에 내재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르페브르에 의하면, 도시적 소외는 ‘추상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의 재현의 문제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공간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르페브르의 가장 유의한 기여는 소외된 공간으로서 추상공간의 체험된 경험에 주목했다는 점, 일상생활의 영역에 추상화를 투영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모순들을 이론화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점”이라고 주장된다(Wilson, 2013, 11). 요컨대 르페브르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도시적 소외’에 관한 통합적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소외’이론은 르페브르의 이론에서 나아가 일

상생활 및 도시화와 관련된 다른 이론가들의 연구들과의 비교·연계를 통해 더욱 세련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생산 영역에서 일상생활 영역으로 소외의 확대와 관련한 연구는 르페브르 외에도 드보르(Devord)와 보드리야르(Baudrillard) 등의 저서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무스토, 2011; 김남희, 2002).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의해 선도되며, 또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의 소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독자적인 주제와 개념들을 가진다. 예로, 드보르는 소외이론을 비물질적 생산에 대한 비판과 연결하고, 특히 (도시)스펙터클의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현대 (도시)사회에서 새로운 경관과 이미지들로 구성된 스펙터클의 사회적 기능은 구체적인 소외의 생산이며, 이를 통해 상품의 물신성은 궁극적으로 실현된다(Debord, 2002, 11-12). 보드리야르 또한 소외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탈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르페브르와 유사하게 현대 사회의 중심성을 생산에서 소비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고, 오늘날 탈산업(소비)자본주의에서 상품의 교환가치가 일종의 ‘기호가치’로 바뀐에 따라 지시대상(즉 사용가치)와 분리되어 부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Baudrillard, 1998). 물론 이들의 소외이론은 일상생활(비노동의 소비, 여가 등)의 영역을 생산 활동과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의 영역과 문화 및 기호(이미지, 이데올로기) 영역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적 생산물, 이미지, 표상형식에서부터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구조 같은 요인까지 경제영역의 일부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외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르페브르의 도시적 소외 이론에서 ‘도시적’ 측면은 하비가 최근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제시한 ‘보편적 소외’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비 자신은 ‘보편적 소외’ 개념을 도시적 배경에 한정 짓거나 또는 이를 명시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서술하지는 않지만, 그의 연구 전반과 관련시켜 보면 이러한 ‘보편적 소외’는 도시를 배경으로 유발·심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 의한 잉여가치의

창출과정에서 “사회적 노동(우리가 타인을 위해 하는 노동)이 소외된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된다. 일과 노동은 화폐 수익을 산출하는 상품의 교환가치 생산만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그리고 자본은 화폐 수익을 기초로 계급지배의 사회적 권력을 쌓아 올린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피지배의 조건을 재생산할 뿐이다”(하비, 2014, 115). 하비는 이러한 소외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과정 속에서, 즉 노동의 분업, 화폐의 물신성, 일상생활과 소비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의 상품화, 자연으로부터의 괴리, 도구적 기술 문화의 발달 등에 의해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비의 최근 연구들에서 이러한 소외를 유발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탈취에 의한 축적’으로 개념화된다. 즉, Bayirbag and Penpecioglu(2015)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소외를 ‘탈취에 의한 자본축적 과정을 촉진하는 보편적 메커니즘이며 탈취에 내재된 부정적인 정신적/감정적 함의’로 이해할 수 있다.

3. 근대 도시의 발달과 소외의 근원

인간의 역사에서 도시의 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집단적 거주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르페브르(Lefebvre, 1991b, 48, 234-252)가 ‘절대적 공간’의 개념으로 서술한 것처럼 고대의 도시 공간은 자연과 대립하여 구축된 인간의 거주지라기보다 자연을 신성시하는 상징적 건축물들의 입지 장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도시공간은 잉여물의 전유를 위해 점차 그 주변 공간(즉 농촌 공간)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면서 계급사회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도시/시골 간의 갈등은 봉건제 하에서 다소 완화되지만,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근대 도시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도시 주변에서 나아가 전체 사회 공간을 도시화시키게 되었다. 자본주의 도시는 생태적 손상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입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한 활동이 가장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발달은 우선 인간과 자연 간 신진대사적 상호행위를 교란시켰다. 도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이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

시로 공급되었지만, 도시인들이 버린 폐기물들은 자연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 및 주거 환경은 점차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노동자들의 경작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연의 파괴가 초래되었다((Marx, 1976, 637; 최병두, 2009, 254-5).

그러나 근대 도시의 발달은 단지 자연의 순환과정과 이로 인한 인간의 생산 및 생활 조건을 물리적으로 악화시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이며 또한 동시에 ‘자연적’이다.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활동이 자연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간단히 “인간은 자연 일부”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자연과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은 다른 종들과는 달리 능동적이며,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과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노동이다. 노동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본성을 (재)생산하고, 사회를 (재)구성·발전시키게 된다. 인간은 대상적 세계, 즉 자연에 대한 그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유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 도시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을 자연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함으로서, 유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점점 더 박탈하게 된다. 근대 도시에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멀어짐 즉 거리감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연으로부터 인간 본성의 괴리에 따른 것이다.

근대 도시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인간본성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이러한 자연으로부터의 도시적 소외는 특히 유한한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여 무한히 ‘축적을 위한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로 심화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사적 소유제와 교환가치의 일반화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사적 소유제로 인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의 분리는 “인간을 그 자신의 신체 그리고 외적 자연과 정신적 측면, 즉 그의 인간적 측면으로부터 괴리시킨다”(Marx, 1977, 69). 또한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상품(그 사용가치)과의 촉감을 통한 접촉은 사라지고 자연과의 감각적인 관계는 막혀 버렸다”(하비, 2014, 389). 자본주의적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더욱 촉진한다. 도구와 기술은 인간과 자

연 간을 매개하는 노동의 연장이며 이를 통해 자연과의 효율적 신진대사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근대 사회(도시)에서 기술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대상화와 지배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최근 자본과 국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자연 관리(또는 생산)전략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최병두, 2009b). 즉 자본은 자연의 모든 측면들을 사유화, 상품화, 화폐화, 상업화하고 있다. 공해오염물질의 처리시설에서부터 유전물질의 복제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됨에 따라, 자연을 구성하는 무수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상품화와 사유화 과정에서 교환가치로 환원되고, 동질화, 정량화, 추상화되게 되었다. 추상화된 자연은 그 내용물을 상실하고 도구적 기술의 지배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으로부터 소외되고 또한 인간 본성을 소외시키게 된다. 요컨대 자본주의 도시의 발달은 인간과 자연과의 신진대사 관계를 점점 더 자본의 지배하에 두도록 했으며, 이로 인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결국 인간 본성과 인간 종이 지닌 잠재력으로부터의 소외를 동반한다(최병두, 2009a).

이러한 자연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인간 생활과 자본축적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자원이 토지이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공여물'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적 소유제의 확립과 이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은 토지의 물신화와 이에 따른 도시적 소외의 주요 근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공유지의 사유화 과정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클로저(울타리치기)와 이에 따른 '시원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과정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16~17세기 장원 체제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로 전환하면서 자행되었던 인클로저는 토지의 사적 소유관계를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노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도시의 자유 임금노동자가 되도록 했다. 즉 역사적으로 인클로저는 영세농민들의 토지 이용을 박탈하고 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의 순환 과정에 투입될 초기 자본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또

한 봉건영주로부터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토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도시의 임금노동자의 누적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인클로저는 단순히 농촌 공동체의 해체나 장소성의 상실에서 나아가, 토지, 즉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농업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소외를 심화시키는 물상화 과정이며, 또한 명목상 자유로운 주체가 도시의 노동시장과 자본축적의 객체로 전환하는 소외 과정이었다(Amaral, 2015). 인클로저에 의한 토지의 탈취 과정은 단지 자본주의 초기단계 즉 시원적 축적단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대 대도시에도 만연해 있다(Sevilla-Buitrago, 2015; 김용창, 2015).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도시 공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 재개발과정은 이러한 인클로저의 현대판으로 간주된다. 즉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도시 재개발과정은 도시 공간의 기존 사용가치(또는 공적 가치)를 제거하고 도시 하위계층의 약자들을 축출·배제하여 토지로부터 소외시키는 한편, 토지 그 자체가 마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물상화시킴으로써 더 높은 교환가치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현대 도시 공간에서의 울타리치기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소외를 유발하는 배경이 이와 같은 자연과 토지로부터의 소외라면, 가장 근본적 요인은 인간 노동의 소외이다. 토지로부터 분리되어(즉 생산수단을 상실하여) 농촌을 떠난 도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즉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임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인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사용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양도(소외)한다. ... 노동자는 노동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도 다른 노동자로부터, 자연과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들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서도 멀어진다. 박탈과 탈취는 노동자 자신의 창조적 본능이 좌절된 데 대한 슬픔과 상실의 감정으로 경험되고 내면화된다"(하비, 2014, 388). 이와 같이 노동력이 양도되기 위해, 우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상품화와 화폐에 의한 축적이 전제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노동은 시간단위로 측정되는 추상적 노동이 된다. 이러한 노동의 상품화는 노동 시장에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장(즉 생산과정)에서는 불평등한 관계와 소외의 근원이 된다.

상품화된 노동은 작업장에서 자신이 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 즉 잉여가치를 창출하지만, 실현된 잉여가치의 대부분은 자본가에 의해 이윤으로 전유된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장의 생산과정은 잉여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상품의 교환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생산된 상품들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상품은 분명 노동의 생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신비화, 즉 물신화된다. 상품의 물신성과 이를 매개하는 교환가치는 인간들의 사회적 연계를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이에 따른 “사물의 인격화와 인간의 사물화”는 노동의 물질적(그리고 비물질적) 조건이 마치 자율적인 힘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며, “노동의 물질적 조건이 노동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그것들에 의해 지배받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Marx, 1976, 1054). 노동자는 가치를 생산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에서 소외되고 노동의 조건으로 지배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도시)사회에서 소외란 개인의 문제 또는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며 제도와 권력의 문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는 생산과정에서 임금노동에 의해 유발되며, 그 결과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상품(사물)들 간 관계로 전환하고, 이에 의해 지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연과 노동의 상품화와 이에 따른 소외는 이들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기술은 자연에 개입하는 인간 노동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과정에 투입되는 기술은 노동자의 존재를 풍요롭게도 할 수 있고, 또한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기술은 분명 노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에 수반된 고역과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변화의 역동성은 노동자의 권력을 빼앗고, 노동의 참여 기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기술은 자연을 도구적인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진정한 노동의 실

현 기회를 박탈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은 그 자체로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산성과 잉여가치의 증대에 동원되는 기술은 자연을 더 많이 지배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인간의 노동과정, 나아가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자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가져온 핵심적 요인으로 장인-도제 관계를 전제로 주문자 생산에 주로 의존했던 가내수공업에서 시장 공급을 위한 대량 생산체제의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기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계조작자, 기계의 부속물이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장제 공업의 발달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장소(작업장)와 비노동(여가)시간의 장소(일상생활의 장소)를 분리시켰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자신의 삶을 위한 것으로 느끼지 않게 되며, 시계시간에 맞춘 작업장 출근은 도시인들을 소외의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했다.³⁾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작업장의 주문제 수공업의 장인 노동이 공장제 기계공업의 조립라인 노동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의 소외는 더욱 증대하였다. 반면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의 유연적 전문화는 ‘인간화된 노동’, 즉 소외가 경감되거나 해소된 노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Archibald, 2009).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첨단기술의 발달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도시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첨단기술 서비스나 지식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보통 높은 교육과 지식, 체화된 기능을 가지며, 이들의 노동과정은 작업장의 육체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덜 소외된 노동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을 가진 노동, 상당한 책임감과 통제력을 가진 노동과정에 불구하고, 기술이 근본적으로 노동과정에 더 깊게 편입됨에 따라 소외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이른바 지식기반 경제나 창조경제에서 심지어 인간의 창조성(정신적 노동)까지도 상품화되고 인간 자신이 아니라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도록 추동된다. 달리 말해, 자본주의에서 과학과 지식의 발달과 기술과 정보의 역동성은 인간 창조성이 상품화·화폐화될 수

있을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자아 상실감을 오히려 촉진하고 인간의 실존적 영역을 축소시킨다.⁴⁾ 이러한 기술 혁신의 궤적은 노동자의 풍요로운 삶과 자아실현에 대한 희망과 양립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은 이에 내재된 도구적 합리성과 이를 추동하는 기술관료적 계획에 의해 도시적 소외를 촉진한다.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은 과잉 발전했고 과잉 가치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과잉 가치화된 기술에 내재된 위험”을 인지하고, 근대 기술의 본질적 위험을 기술적 생산물이나 과정에서 찾기보다는 특정한 재현양식(또는 그가 명명한 ‘틀지우기’(enframing))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술의 위험은 자연의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라 틀지우기가 모든 다른 재현 양식들을 배제하게 되는 세계(그리고 공간)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 기술관료적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러한 재현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의 물신화된 표현이라기보다 “체화된 경험에 대해 무서운 환원적 권력을 휘두르는 추상화”의 기술로 기능한다(Lefebvre, 1991b, 52). 예로, 이러한 기술관료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간의 재현은 오늘날 도시 공간의 계획과 재편이 도시인의 삶을 배제하고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추상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도시의 소외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임노동에 기반을 둔 소외라기보다 노동에 활용되는 기술관료주의적 속성에 더 많이 근거를 둔다고 주장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이 자연과 인간 간의 노동과정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면, 분업의 발달은 노동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업은 인간의 개별적인 신체적, 정신적 조건에 근거를 두고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간 사회적, 기능적 분화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자원 분포의 지리적 차이에 근거하는 생산의 지역적 특화와 이에 따른 생산물의 교환, 즉 노동의 공간적 분업도 생산성의 증대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공간적 분업 역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 생산체계의 공간적 분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교환에 전제되는 사

적 소유와 상품화의 촉진 등을 통해 자연과 노동의 소외를 심화시켜왔다. 우선 사회공간적 분업의 발달은 특정 지역에 특정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생산 지역의 자원 고갈과 소비 지역의 폐기물 누적을 초래한다. 생산과 소비의 사회공간적 분리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어떤 집단이나 지역에서 소비될 것인가를 알기 어렵게 하고, 또한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소비에 대해, 소비자는 생산에 대해 소외되도록 한다. 즉 노동의 분업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연의 능력을 착취하는 것이고, 이들의 존엄성을 박탈함으로써 이들로부터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오늘날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은 생산체계의 분화로 더욱 촉진되게 되었다. 즉 상품의 생산체계가 원료 생산에서 부품이나 중간재의 생산, 그리고 완제품의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들로 분화되고 특히 상품을 기획하고 연구·개발하는 구상기능과 이를 직접 생산하는 실행기능 간 분화가 발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공간에서 구상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작업장 공간에서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육체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의 물리적 강도는 약화되고 노동 시간과 이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공장노동자들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노동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무실 노동자들도 컴퓨터와 각종 전자사무기기에 의해 역매인 노동을 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자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업 체계 안에서 자신이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생산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분업 체계 내의 한 지점에 붙들려서 파편화된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고립·개별화되고, 경쟁에서 서로에게 소외되며, 전체에 대한 느낌이나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분업의 사회공간적 확장으로, 지역적 불균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소외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4. 탈산업 자본주의 도시와 소외의 심화

산업 자본주의에서 탈산업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는가 또는 더 심화시켰는가에 대

한 논란이 있었다(Archibald, 2009). 일부 학자들은 작업장에서 소외된 노동이 오늘날 높은 소비 수준에 의해 보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의 상승과 기술의 체화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통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가 점차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산업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증거가 더 많다. 탈산업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과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은 우선 지구-지방화과정 속에서 생산체계는 지구적 규모로 분화되고, 각 지역의 생산과 소비는 지구적 규모의 거리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게 되었다. 또한 도시인들은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생활수단들이 상품화되면서 소외된 소비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러한 소외된 생산과 소비는 물질적 부문에서 비물질적 부문(다양한 서비스 부문들과 더불어 과학과 지식, 정보, 이미지, 등의 생산과 소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과잉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금융화와 건조환경을 통한 탈취에 의한 축적을 만연시킴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탈산업 자본주의 사회(도시)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과 작업장에서 피고용자의 지위 향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으로 소외를 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실업과 고용 불안 겪으면서 소외된 노동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소비 및 여가 나아가 일상생활 전반의 상품화,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역할 증대,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의 확대, 그리고 금융자본의 발달과 도시공간의 금융화 등에 의해 더욱 심화된 소외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또는 지구-지방화로 인해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 간 관계, 생산체계의 각 부문들 간 연계,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외의 메커니즘은 지구적 맥락으로 확장되었다. 지구적 자유무역과 세계적 시장 통합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교역을 가로 막는 모든 장애들을 제거함에 따라 생산과 소

비 간의 물리적 거리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소외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소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과 소비 간 물리적 거리의 확장은 상품의 기능적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상품들 간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을 더욱 촉진한다. 하비(2014, 196)가 서술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즉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이들에게 이렇게도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사회공간적 분업은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고 다규모화된다. 즉 자본이 생산성 증대와 잉여가치의 창출을 위해 생산-소비관계와 더불어 생산체계 내 노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자 함에 따라, 분업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분업에서부터 지역들 간 분업, 국가 간 국제적, 지구적 분업에 이르기까지 다규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에 따라 진화한 글로벌 생산체계의 구축은 상품 생산의 각 과정이나 단계들을 담당하는 공장들을 세계의 어떤 지점이든지 간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공장 또는 다공장체제의 운명은 지역경제와 지역노동자들과는 무관하게 역외 초국적기업에 의해 좌우된다. 제3세계의 분공장 노동자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가질 뿐이고, 자신의 노동과정과 생산품이 누구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는지를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은 세계도시체계의 발달, 또는 ‘지구-도시화’나 ‘행성적 도시화’로 지칭되는 세계적 규모의 도시화 과정을 동반했다. 중심-준주변-주변 도시들 간의 포섭 관계를 나타내는 세계도시체계는 오늘날 대도시들이 인접한 주변도시들보다는 세계적으로 더 큰 대도시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도시화(glurbanization)란 오늘날 도시화가 도시 주민들에 의한 내생적 발전이 아니라 지구적 자본과 권력(초국적기업, 국제금융자본, IMF, 세계은행 등)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Jessop and

Sum, 2000),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란 “지구적 규모의 광대한 영역들이 도시적 공간편성의 확장을 통해 지구적 노동분업 속으로 재설계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Merrifield, 2013). 이러한 도시체계의 발달이나 도시화 과정은 전세계가 단일의 도시경제로 통합되거나 고밀도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초메가시티로 발전하거나 또는 대도시의 정체성이 세계시민주의로 재구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따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초국적자본(이들의 분공장이자 금융자본)의 의해 불균등하게 통제되고 있다(최병두, 2012). 그리고 노동자들은 고용기회와 임금에 따라 낮은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의식은 단절화·파편화되면서 자신의 존재로부터 행성적 차원에서 소외되게 되었다.

탈산업 자본주의에서 도시적 소외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 그리고 생산-소비 관계의 지구적 (외연적) 확장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한 소비 영역의 지배 그리고 생산 영역에서 물질적 생산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생산의 (내포적) 포섭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본에 의한 소비 영역의 지배는 생산과정(즉 잉여가치의 생산)에 기본적으로 근원을 두었던 소외가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의 촉진과 소비과정 및 여가생활 자체의 상품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소외를 동반하게 되었다. 대도시에서의 소비는 개인의 물질적 필요의 충족에서 나아가 서로 차별화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소비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 유행하는 명품 소비(심리)는 자본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사용가치가 동일하거나 더 적지만, 값은 오히려 더 비싼 상품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식의 광고와 마케팅 홍보를 통해, 자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상품의 구매가 사치스러움과 여유, 행복감과 신분감을 높여 준다는 식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충동소비 또는 과시적 소비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의 충족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이러한 상품은 ‘보상심리 해소용 상품’에 불과하다. 오늘날 도시인들은 “소비주의적 도시공간에서 길을 잃고, 넘쳐 나는 보상심리 해소용 상품 속에서 허우적댄다”(Gore, 1989; 하비, 2014,

398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자본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도시인들의 필요(사용가치로 파악되는)의 충족이라기보다 필요(교환가치로 비교되는)의 새로운 창출이다. 도시인들은 자본에 의해 창출된 이러한 필요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소외된 소비를 위하여 (즉 자신의 필요에서 소외된) 도시인들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도 마다하지 않지만, 반면 금전적 보상이 없는 활동은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상품에 대한 경쟁을 통해 개인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결속력을 해체하는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주의는 과잉생산에 따른 상품시장의 포화와 더불어 임금 억제로 인한 유효수요의 저하, 그리고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 사태에 따른 잉여가치 실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드보르(Debord, 2002: 13; 무스토, 2011, 98 재인용)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업무시간이 끝나면, 노동자는 갑자기 생산의 조직과 감시의 모든 측면에서 그토록 노골적으로 가해지던 총체적 멸시로부터 벗어나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공손하게 어른 취급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순간 상품의 휴머니즘은 노동자의 ‘여가와 인간성’을 책임지는데 그 이유는 단지 정치경제가 이제 이러한 영역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지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소외의 심화는 물질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특히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소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드보르는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스펙타클로 개념화하고, 스펙터클의 사회적 기능은 구체적인 소외 생산”이며, 스펙터클을 통해 “상품의 물신숭배는 ... 궁극적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Debord, 2002, 11~12).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는 개인들이 자본에 의해 창출된 필요의 충족을 위해 소비하도록, 즉 ‘지배적인 이미지들과 동일시’하도록 하여, 개인들을 자신의 실제 필요의 충

즉, 실제 자신의 존재로부터 더욱 멀어지도록 한다. 보드리야르도 드보르와 유사하게 소외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탈산업 자본주의의 소비 사회를 비판한다(Baudrillard, 1998; 김남희, 2002). 그에 의하면, 오늘날 (도시)사회에서 일상적 삶은 상품의 생산보다 기호(또는 코드)의 법칙에 의해 틀지어지며, 특히 상품의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소외를 유발한 것처럼, 특정한 기호가 그 지시대상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소외를 유발한다. 즉 산업자본주의에서 상품의 교환가치적 질서에 의해 착취와 억압 그리고 소외가 주도되었다면, 탈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은 기호에 부여된 이데올로기(지시대상과 괴리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시대상(물질적 상품)과 괴리된 기호가치로 의해 발생하는 소외의 개념은 언어나 지식, 문화와 습관, 관행과 제도 등 다양한 비물질적 요소들의 생산과 소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경제활동은 물질적 생산에서 비물질적 생산들, 예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새로운 디자인과 이미지 창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활용, 암묵적 지식과 공동학습, 상호협력과 사회적 자본 등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물질적 재화보다 정보, 이미지, 메시지 등 다양한 상징적 재화의 구입과 소비에 점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보다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비물질적 재화를 제공되는 서비스경제(교육과 의료, 연구개발, 금융 및 보험, 법률 경영 자문, 광고와 시장조사 등)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축제와 관광, 스포츠 경기, 다양한 전시 및 예술 활동 등의 문화산업이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급속한 팽창은 도시 생활과 공간의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정환, 2011, 255-271; 하트와 네그리, 2014, 349-363). 산업 도시들에서 자본축적이 대규모 생산설비와 거대한 사회간접시설 등에 물질 기반을 두었다면, 탈산업 자본주의의 포스트모던 도시들은 상징적 가치들이 도시공간을 뒤덮은 화려한 스펙타클의 생산과 소비를 자랑한다.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경제활동

은 물질적 영역과 더불어 문화적 상징적 영역 모두를 상품화시키고 자본의 순환과정에 편입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를 자본축적 과정에 포섭되도록 한다. 즉 과거 물질적 생산(그리고 소외된 노동)이 작업장(공장)에 한정되었다면, 오늘날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공장을 벗어나 가정(사적 공간)이나 거리(공적 공간)를 막론하고 심지어 사이버공간을 포함하여 도시 공간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공간에서 생산과 유통, 소비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소외되게 되었다. 특히 도시 공간에서 비물질적 이미지의 생산(엄격히 말해 재현)과 소비는 물리적 시공간에 의해 분리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결합한다. 예로 거리의 화려한 전자 광고판은 끊임없이 상징적 언어들을 생산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유통되고, 소비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 없이 무작위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물신화의 극치를 이룬다. 또한 언어, 이미지, 지식, 정동, 코드, 습관, 관행이나 도시경관의 상징성이나 심미성, 역사성 등은 사회적 생산물 또는 인공적인 공통재이고 이들이 작동하는 공간은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지만, 이들은 점점 더 자본축적 과정에 포섭되어 사적으로 전유되면서 도시인들로부터 소외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도시공간에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역할과 이로 인한 소외에 관한 관심 증대는 도시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서 물질 토대의 역할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의 물질적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순환의 메커니즘과 이에 내재된 모순은 도시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탈산업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생산체계와 생산-소비 연계의 지구적 확장,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소비영역의 지배, 그리고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 부문의 편입 등을 통해 (임금노동에 의한) 확대재생산뿐만 아니라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순환 경로의 확장과 이와 관련된 금융자본의 발달 및 도시공간의 금융화를 통한 축적, 즉 하비가 지칭한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축적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탈취에 의한 축적은 “도시토지의 상품화(도시 ... 주민

들을 그들의 보금자리로부터의 추방을 유도하는), 공적 자산의 민영화와 상품화(자연자원과 토지, 공적 서비스와 기관들을 포함하여), 소유권의 전환, 국가 부채와 신용체계의 이용(노동과 토지의 장기적 탈취의 수단으로서 금융화), 토착적 생산[그리고 생활]형태의 억압, 교환의 화폐화[즉 사용가치에 대한 교환가치의 지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Bayirbag and Penpecioglu,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의 순환, 탈취에 의한 축적을 위한 도시공간의 재편은 도시공간의 생산에서 소외와 건조환경의 물상화를 더욱 심화시킨다(Amaral, 2015).

도시 재개발과정(도시 재생, 또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지칭되는)은 도시의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거나 사적 토지를 공적 목적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용한 후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토지 소유권의 전환과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이로 인해 도시의 서민과 영세상인들은 토지 소유와 이용권을 박탈당하고 생산 및 생활수단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소외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기존 토지 소유 및 이용관계를 해체하고 토지를 사유화하고 자본축적 과정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인클로저는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지구화된 경제에서 도시의 역할을 재강조하도록 한다. 이러한 도시의 건조환경 또는 도시 공간의 재편은 분명 도시인들(보다 분명히 말해, 도시 노동자들)의 생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의해 사적으로 전유되고, 일반 도시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생산과 생활의 객관적 조건으로 대상화된다.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은 이와 같이 도시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 또는 이용하던 토지나 공적 공간으로부터 축출되어 소외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낸 도시 건조환경(이에 부착된 경관도 포함하여)은 자본의 통제 하에 물상화되어 일반 도시인들에게는 억압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의 실현 영역에서는 탈취에 의한 축적에 시달리며 누적된 불만이 끓어 넘친다. 자유는 지배가 되고, 노예의 삶이 자유를 대신한다”고 서술한다(하비, 2014, 389).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도시공간에서 소외의 본질적 유발요인은 바

로 이러한 탈취에 의한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건조환경을 둘러싼 자본축적(특히 탈취에 의한 축적)과정은 건설 및 부동산자본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과 국가의 개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로나 철도 기타 인프라 등 도시 건조환경의 구축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하며, 투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주로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 건조환경은 금융자본이 뒷받침하는 건설·부동산자본에 의해 조성·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건설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건설회사는 이를 투입하여 토지를 구입·개발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다. 금융기관은 또한 구매자들에게도 자금을 대출해 주고, 구매자들은 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주택 구매자는 실수요자일 수 있지만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자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주택의 과잉 공급 등으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미래 수입 일부에 대해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자는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구매자는 자신의 미래 수입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 건조환경에서 작동하는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대출한 원금에 이자가 붙어 환수되기를 기대하고 투입되는 ‘의제적’(fictitious) 자본이다. 이러한 의제자본의 순환은 부동산 가치의 생산과 실현 과정을 완결시키는데 필수적이지만, 원칙적으로 미래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막대한 양의 의제적 자본이 주택금융으로 유입되어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부추겼지만, 실물경제에서 실질임금에 의해 대출금(원금+이자) 상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도시 부동산시장에서 작동하는 금융자본은 물론 단지 은행(대출)

자본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들(예로, 부동산펀드, 리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확보된 자본이지만, 공통적으로 투기성이 매우 높은 의제적 자본이다. 이러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은 신용체계의 발달에 기반을 둔다. 창출된 잉여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용체계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은 예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뿐만 아니라 고가의 자동차와 같은 과시적 소비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체계에 바탕을 둔 소비는 창출된 잉여가치의 실현을 원활히 함으로써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지속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적 자본의 순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체계의 발달은 상품 세계의 물신화를 촉진하고 도시인들의 소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고조시킨다. 의제적 자본의 순환과정은 어떤 가치를 창출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것도 생산하지 않았다. 주택구매자에게 대출된 자금은 이자가 붙어 자본으로 환수되지만, 여기서 이자는 실물생산에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전유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은 실물생산과 괴리된 채 이에 기생할 뿐이다. 도시 부동산시장에서 작동하는 각종 금융자본과 증권화를 통한 유통뿐만 아니라 각종 선물시장에서 작동하는 금융자본과 파생상품들은 이러한 화폐의 물신성을 엄청나게 확장시킨 것이다. 화폐의 물신성이란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의 걸모양을 벗겨낸 것이자 보편적 소외의 산물”임을 의미한다(Marx, 1976, 205). 이러한 화폐의 물신성으로 인해 화폐의 거대한 힘은 마치 그 자체로 자연적 속성과 같이 작동한다.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물신숭배의 두드러진 사례이며, 그 절정은 ‘이자 낳은 자본’(즉 의제적 자본)이다(콕스, 2009).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금융자본의 물신성이 자본축적의 지속에서 중요한 모멘트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곳들로 침투하고 있다. 주택구입에서부터 학자금 대출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가속적으로 증가한 도시 서민들의 부채는 이런저런 형태의 비참한 문제들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노동과 생존의 조건을 억압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현재 영역들을 넘어서 미래의 삶의 조건까지 확대된 자본주의적 소외와

물신성,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모순 해결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탈소외로서 정의로운 도시

1) 소외 극복을 위한 이론과 현실

헤겔의 소외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마르크스의 소외 및 물신화이론 이후 소외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이론가들은 소외에 관한 비판적 논의와 더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마르크스는 초기 저술에서 임금노동과 사적 소유 및 노동의 분업으로 인해 자유로운 인간이 노동과정에서 자유를 상실하고 소외되었음을 지적하고, 사유재산제와 노동 분업의 폐지를 통한 소외의 극복을 주장한다. 사적 소유제의 폐지는 노동자가 자연(토지)과 자신이 맺는 소외된 관계, 그리고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의 사적 전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주의적 분업의 폐지는 화폐에 의해 기능적으로 연계된 생산-소비 관계를 극복하고 자율적인 공동체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크스는 후기 저작에서 상품의 물신성 극복을 위하여 생산수단의 공유와 임금노동에 의한 생산체계의 극복을 주장한다. 그는 대안적 사회공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이 자각하여 사회적 노동력으로 확장된 자유인들의 연합체로 결합된 생산자들과 이들에 의해 자연과의 신진대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최소 노력과 인간성에 조응하는 관계)를 제시한다(최병두, 2009). 탈소외를 위한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제안은 물론 이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에 관한 의문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소외는 생산영역에서 벗어나 사회공간적으로 모든 영역들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현대적 소외가 생산영역에서 사회공간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된 대안들의 대표적 사례들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마르크제와 프롬의 소외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무스토, 2011 참조). 예로, 마르크제(Marcuse, 1966)에 의하면,

소외에 대한 비판은 노동과 기술 일반에 대한 비판이며, 소외의 극복은 생산활동에서 부정되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유희의 순간에만 가능하다고 제시된다. 즉 그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기반을 둔 탈소외된 사회의 가능성을 폐기하고, 오직 노동의 종말과 리비도(libido)의 실현만이 소외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롬은 생산과정에서 유발된 소외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적 인간’과 ‘건전한 사회’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산적 인간(또는 ‘생산적 성격 유형’)은 인간이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이용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인간(성격) 유형을 의미한다(Fromm, 1949). 마르크제의 대안은 기술 지배 일반에 반대하면서, 모든 노동을 자유와 희열과 대립시키고, 노동의 영역 밖에서 탈소외의 계기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프롬의 대안은 생산적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자기의 힘을 자신이 실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본성의 회복을 강조하지만, 생산적 인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지 않았다.

탈소외에 관한 르페브르의 견해는 마르크제나 프롬과는 다르다. 후자는 노동의 영역 밖에서 탈소외의 계기를 찾고자 하지만, 전자는 소외된 노동 또는 소외된 일상생활 자체에서 탈출의 계기를 찾고자 한다.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에 있어 비판은 “가능성, 아직 완수되지 않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판의 과제는 이러한 가능성과 완수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논증하는 것이다”(Lefebvre, 1991a, 18-19).⁵⁾ 이러한 점에서 (도시 또는 추상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은 기술관료적 생산주의에 종속되어 있지만, 또한 이에 저항적이며, 따라서 소외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능한 ‘탈소외’의 자리이기도 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외되었음을 의식함으로써 탈소외의 가능성을 찾게 된다. 소외(낮섬에 대한 인식을 낮설게 하는)에 관한 의식은 우리를 소외로부터 해방시키거나 해방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인간은 소외에 관한 의식을 통해 그 자신을 탈소외시킬 수 있다. 일상적 인간은 실천 인간이며, 실천만이

그를 소외로부터 그를 해방시킬 수 있다(ibid, 20-23). 이러한 일상생활의 소외 의식으로부터 탈소외의 가능성 모색은 그가 <공간의 생산>에서 제시한 추상공간에서 차별공간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인 것 내에서 가능한 것의 추구, 즉 기존의 도시 공간(그리고 이의 재현)에 존재하는 잠재적 탈자본주의 공간을 의미한다. 즉 추상공간의 소외에 관한 비판은 추상공간이 차별적 공간의 가능한 탈소외에 대립적으로 이해될 것을 요청한다(Wilson, 2013).

르페브르가 제시한 탈소외의 공간으로서 차별공간은 자율성 또는 자주관리(autogestion)와 이를 위한 차이의 정치 등에 바탕을 둔 ‘혁명적 낭만주의’에 관한 그의 관심과 관련된다. 일상생활을 생산주의적 규정력에 종속되도록 하는 기술관료적 도구적 합리성은 추상화를 통해 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추상공간의 소외된 현실에 개입하여, 탈생산주의적 공간으로서 차별공간의 인식과 실천을 강조한다. 자율화 또는 자주관리는 교환가치에 대한 사용가치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생산의 집단적 자기관리를 의미한다(Lefebvre, 1979/2001, 779-780). 이러한 자율화, 즉 탈소외의 정치는 동질화, 추상화에 의한 체험된 경험의 지배에 반대하는 차이의 정치를 통해 일상생활을 차별의 공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차별공간의 생산은 교환가치에 대한 사용가치, 동질성에 대한 차이, 정량화에 대한 정성화, 인지된 것에 대한 체험된 것의 우선성, 그리고 생산주의의 극복과 탈생산주의적 사회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생산주의의 극복은 노동에 의한 생산의 포기가 아니라 기술관료적 성장 이데올로기의 극복을 의미한다. “성장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은 침체된 내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창조적 자유의 탈소외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Wilson, 2013, 10). 르페브르의 혁명적 낭만주의는 그의 평생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의 집단적 실현을 위한 희망의 표현이었다.

탈소외에 관한 르페브르의 주장들은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인간은 소외에 관한 의식을 통해 그 자신을 탈소외시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소

외된 일반 시민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헤겔과 마르크스 이후 많은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이 소외의 근원과 심화과정에 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오히려 소외를 점점 더 심화시켜 왔고, 탈소외의 가능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를 심화시키는 자본축적과정과 이에 내재된 모순들에 관하여 훨씬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소외의 심화로 인한 도시인들의 주체적 의식과 실천 가능성의 소진에 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소외를 위한 이상적 전망과 현실적 대안 간의 괴리에 주목하고, 대안의 진정성과 의사성(擬似性)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로 르페브르는 간과한 점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폭발적 인구 성장과 생산체계의 지구적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행성적 도시화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탈소외를 위한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폐기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현대(도시)사회에서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를 유발하는 자본과 국가가 소외(의 외형적 표출)를 일정하게 통제하거나 또는 소외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외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그동안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본과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를 경감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행해 왔다(Bayirbag and Penpecioglu, 2015). 해고 및 (최소)임금 통제, 노동조직의 제도화, 작업장 환경 개선(표준화) 등은 노동자의 소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정책만으로 소외를 관리하기가 부족하여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모색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제도들은 노동자들의 소외를 비노동 생활(공간)에서 부분적으로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때 논의되었던 노동계급의 자산보조 정책이나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기본소득 보장 정책은 소외를 경감시키기 위한 유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공급, 임대차 보호, 공유재(또는 공공재, 예로 버스와 지하철)의 확충

등은 생활공간의 보호를 통해 작업장에서 소외의 부정적 영향을 보다 쉽게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 완화/경감을 위한 복지 정책들은 공적 재원의 한계와 더불어 경제침체 국면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으로 인해 급속히 축소되었다.

시장 경제로의 회귀를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에 따른 도시화 과정은 노동의 양적 유연화를 강화하면서 고용/해고 조건과 작업장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소득 및 자산보유의 격차를 크게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유재의 민영화와 시민들의 토지 및 주거의 탈취와 배제, 공적 공간의 인클로저에 의한 사유화와 상품화, 복지보다 경제 성장과 도시 개발을 우선하는 기업주의 도시, 역외 자본의 유치과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활용, 도시 브랜딩이나 마케팅 등을 통한 소비주의의 촉진, 그리고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국가(도시) 발전 담론, 인간의 창조성까지 상품화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전략 등은 현대 도시에서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인들이 자신들의 소외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들이 소외의 의식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공적 공간의 상품화와 탈취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사업에 직접 참여(보장)하거나 공적 담론을 홍보하여 민간 자본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공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예로 민자도로의 건설과 운영). 또한 도시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정책들은 대부분 공동체적 결속을 도시경제에 편입시키는 담론을 가지거나(예로, 공동학습, 사회적 자본 등), 또는 역으로 공동체적 기반을 파괴하거나(도시재개발) 불만의 조직적 표출을 억제하는 이데올로기적 또는 폭력적 대책을 강구하기도 한다(용산 사태처럼).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도시의 위기는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소외의 효과로 인해 유발된 잠재적 불만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Bayirbag and Penpecioglu, 2015),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소외 억제 전략들은 한계를 가지고, 소외의 문제를 더욱 확대·심화시킬 뿐이다.

2) 도시권에서 정의로운 도시로

소외의 문제가 마르크스와 그 이후 많은 학자에 의해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자본 축적의 지속적 확장에 기인한 것이며, 소외에 대한 진정한 (이론적이라기보다 실천적) 의식의 부족과 더불어 이를 경감 또는 억제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페브르의 탈소외이론이 가지는 또 다른 유의성은 그의 탈소외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또는 운동)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68운동이 프랑스를 휩쓸던 시기에 제시된 그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그의 관심을 일상생활에서 도시로 전환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68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에 의하면, “도시는 그 자체가 작품(oeuvre)이다. 즉 화폐와 상업, 교환과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은 사용가치이고 제품은 교환가치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중시되고 이로 인해 집합적 작품인 도시가 소외되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이 공동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 부활된 도시중심성에 대한 권리, 만남과 교류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생활 리듬과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과 장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Lefebvre, 1996, 66-67).

르페브르에 의하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동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사적 소유권과 교환가치에 대해 사용가치를 우선한 전유의 권리,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도시 재개발로 인해 배제된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도시 공간의 동질화에 반대하는 차이의 권리와 도시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권리,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시민권보다 도시 주거에 기반한 거주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강현수, 2010).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그의 탈소외 개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

다. Purcell(2013, 49)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자본이 생산수단과 노동의 생산물을 노동자로부터 소외시킨 것으로 이해한 것처럼, 르페브르는 재산권이 도시공간을 도시 주민들로부터 소외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도시공간을 탈소외화하기 위한, 이를 사회적 연계성의 망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한다. 그는 전유의 관점에서 이러한 탈소외를 논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그의 사고는 도시에서 공간을 전유하는 주민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한 탈소외와 자주관리를 위하여 즉 도시의 공간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최근 하비의 <반란의 도시>에서 재조명되면서 대안적 도시를 모색하는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비에 의하면 도시권은 기본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잉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관한 권리이다(하비, 2014b, 56). 그에 의하면 도시화는 잉여가치를 끊임없이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한 잉여생산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잉여의 생산과 배분, 재투입에 관한 집단적 권리로 이해된다. 특히 하비는 도시를 온갖 유형과 계급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유재를 생산하는 장이며, 따라서 도시권은 도시인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공유재에 대한 집단적 권리로 규정한다. 이러한 하비의 도시권 개념은 분명 그의 자본순환론과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겠지만, 하비는 도시권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보다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개념으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도시권 개념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르페브르의 지적 유산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도시권을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로 채워져야 하는 텅 빈 기표”로 간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은 도시의 주민이나 노동자들

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자와 도시 개발업자가 홈리스나 불법 이민자들보다 더 강하게 도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하비, 2014b, 12; 232; 18).

하비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며, 또 권리를 정의하는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하비, 2014b, 18). 달리 말해, 도시권은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로 채워져야’ 할 기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권 개념을 단지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채워야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도시권에 대한 요구와 그 내용은 일상생활의 위기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통, 즉 소외로 인한 불만과 저항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인들이 자신의 소외를 의식하고 탈소외를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도시권을 인식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정하게 구성되고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비가 <반란의 도시>에서 도시권 개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것처럼, 도시권의 개념과 이에 대한 요구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는 신용체계의 발달과 의제자본의 순환 과정, 공유재로서 도시문화와 독점시대 등과 나아가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 특히 오늘날 도시공간에서 자행되는 탈취에 의한 축적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 개념의 내용을 채우기 위하여 다시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및 공간의 생산에 관한 이론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소외/탈소외의 개념과 좀 더 긴밀하게 관련시켜 이해하고, 나아가 마르크스의 소외론이나 물신화이론까지도 소급하여 재검토함으로써 도시권 개념의 규범적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르페브르가 소외/탈소외와 관련하여 논의한 핵심적 개념들 가운데 하나는 기술관료적 생산주의 비판이다. 생산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에 의하면, “성장의 문제와 이에 내포된 정량주의가 근본적 문제이며 전략적 목표는 무한한 성장이라는 사고”에 기인한다(Lefebvre, 1973/1976, 100). 여기서 재검토되어야 할 점은 기술관료적 생산주의에 의한 추상화(그리고 추상공간) 그 자체가 소외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생산주의가 추상화를 통

해 인간의 노동과 일상생활을 통제하여 지속적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산주의는 ‘거대한 규모’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을 갖춘 국가 형태의 발전을 요구하면서⁶⁾, 그 효과를 전체 영토, 국가, 대륙으로 확장시키지만,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강제하고 그 결과물을 국가 관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소외를 심화시킨다(Wilson, 2013). 이러한 점에서 탈소외를 위한 탈생산주의로의 전환은 사적 소유제의 폐지에 기반을 둔 분배의 문제라기보다 강제되지 않은 노동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생산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소외된 도시의 추구 또는 이를 위한 도시권의 요구는 탈소외된 노동을 위한 생산적 정의 및 인정의 정의와 관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간적 정의’ 또는 ‘정의로운 도시’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지만, 이들은 소외 및 탈소외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도시’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지는 못했다. 예로, 소자(Soja, 2010, 6)는 오늘날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르페브르에서 기원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투쟁하기 위한 ‘공간적 정의’의 모색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의한 지리(도시 공간)의 생산에 관한 비판이나 공간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요구에서도 르페브르가 논의한 소외/탈소외에 관한 개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Yiftochel et al(2009)은 도시적 정의의 핵심요소로 인정(recognition)의 개념을 강조한다. 즉 “인정 또는 인정의 부재는 사회적 및 공간적 정의를 향상시키거나 손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인정의 정의 개념을 주로 인정과 재분배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시켜 이해하면서, 이 개념의 근원이 소외에 관한 헤겔의 연구에서 기원함을 간과한다.

탈소외로서 정의로운 도시의 관점에서 도시권의 개념은 도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당한 분배의 요구, 즉 분배적 정의를 내포한다. 도시 서민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하며 또한 개인적 소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다른 분배는 개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한편으로 구매력 부족과 다른 한편으로 과시적 소비로 인해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도시 공간의 배타적 사적 소유와 이용을 지양하고 도시 공유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도시 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 인클로저를 통한 도시 공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공적 공간의 사유화, 나아가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취에 의한 축적은 기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축적은 사실 새로운 부를 생산하기 보다는 기존에 생산된 사회적 잉여가치를 사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분배적 부정의와 도시적 소외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화를 통한 탈취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엄청난 부채는 미래의 노동까지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완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도시적 소외는 이러한 분배적 정의의 새로운 방안들의 모색만으로 극복되기 어렵다. 자본주의적 도시 소외의 핵심은 노동 및 생산과정에 있다. 노동은 인간이 물질세계와 관계를 맺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가치의 창출을 위한 임금노동으로 전락함으로써 소외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이 소외되었다고 해서, 노동의 영역 밖에서 탈소외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록 그 바깥에서 탈소외의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의 영역은 여전히 소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산적 정의가 필요하다. 생산적 정의란 노동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 즉 양질의 일자리는 최대한 제공되어야 하고, 반면 임금을 줄이기 위한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은 축소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잉여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임금노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지나친 기술의 발달과 분업의 세분화는 억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산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은 노동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체화되어야 하며, 분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생산체계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는 자신의 생산이 누구에 의해 소비되는가를 이해하고 관리될 수 있는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도시적 소외의 극복은 인정의 정의를 요구한다. (상호) 인정은 타자와의 대상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상호보완적 과정이며, 자기의식은 상호보완적 행동의 구조 즉 ‘인정을 위한 투쟁’의 결과로 이해된다. 만약 이러한 투쟁에서 상호인정이 아니라 타자의 삶을 억누르고 거부하게 되면, 자아는 자기 삶의 불충분, 즉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호네스가 주장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즉 “생산함에서 한 사람은 그 자신을 실현할 ...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의 상호행위 상대자들 모두가 필요를 가진 공동주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애정 깊게 인정하게 된다”(최병두, 2009a, 330 재인용). 이러한 인정의 정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주체들의 관계도 매개하는 노동이 매개 대상물들의 상호인정,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배려와 더불어 물신화된 사회적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재전환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의 정의는 특히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이 가지는 정체성이나 차이의 상호 인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배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6. 결론

오늘날 점점 더 심화·확장되고 있는 소외는 특히 도시를 근본적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핵심은 ‘도시적 소외’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적 소외는 단지 도시의 인구 밀집이나 익명성과 같은 형태적, 개인적 특성(예로, 고립감)에서 유발되기보다는 도시가 자본 순환의 주요 장이며 또한 자본 축적의 핵심적 수단이기 되었기 때문에 발생·심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사회에서 도시적

소외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 과정(즉 도시화)은 그 자체로 자연으로부터 소외 과정이며, 시골 농업에서 도시 공업으로의 전환 과정(즉 산업화)은 토지로부터 축출된 농노들이 도시의 임금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 즉 노동자들을 토지(즉 기본적 생산수단)로부터 소외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자연과 토지로부터의 소외를 배경으로 자본주의 도시의 임금 노동자들은 (잉여)가치의 창출과정에서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로부터, 그리고 노동과정과 노동하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이러한 노동의 소외는 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과정에 개입하는 도구적 기술과 사회공간적 분업의 발달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즉 탈산업사회의 도시적 소외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을 통해 세계적 규모로 공간적으로 확장되었고,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화 과정을 통해 시간적으로 확장되어 미래의 노동에 대한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확장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여가) 부문, 비물질적 영역(지식, 기호, 이미지, 습관, 감정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과정으로 인해 도시 공간과 경관(스펙터클)으로부터 소외도 심화되게 되었다. 특히 자본축적과 관련된 도시적 소외는 노동에 의한 확대재생산에 기반을 둔 축적과정뿐만 아니라 하비가 주장한 ‘탈취에 의한 축적’(도시공간의 상품화, 민영화, 금융화 등)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소외의 심화·확장과정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상태(적대감과 불안감 등)로 내면화되면서, 오늘날 도시 공간에 심각한 이탈현상들을 유발하면서 인간 삶을 황폐화시키면서 위기에 처하도록 한다.

도시 위기의 극복은 이러한 도시적 소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로부터 탈출하는 것, 즉 탈소외된 도시를 전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도시적 소외의 극복과 탈소외된 사회의 건설은 하이데거가 주장한 것처럼 과거로의 낭만주의적 회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를 유발하는 도시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도시적 실천, 특히 도시인들이 생산한 도시의 잉여에 대한 권리의 요구, 즉 도시권의 이론화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권의 개념은 아직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도시권 개념의 설정을 도시 현장의 실천가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이 생산한 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서 도시권의 개념, 나아가 탈소외된 정의로운 도시는 도시 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소득과 복지를 위한 분배적 정의, 노동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존감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적, 정의,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배려와 물질화된 사회적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정의 정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

- 1) 1970년대 ‘도시적 소외’에 관한 논의들은 위스(Wirth)의 ‘생활양식으로서 도시성’ 연구가 이의 개념화에 우선 기여한 것으로 이해한다. 짐멜(Simmel)과 파크(Park)의 저서들에 바탕을 두었던 위스의 도시성(urbanism)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사람의 엄청난 집괴가 개인적 무력감의 현실과 인식을 창출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연대가 파괴되고, 도시인들은 고립된 상황으로 내몰리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이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인식된다(Fischer, 1973). 그러나 Parker(1978)에 의하면, 도시성이 사회에 대한 소외를 증대시킨다고 흔히 주장되지만,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소외는 도시성 자체보다는 도시화 과정과 더 관련된다”고 주장된다.
- 2) 영어 alienation의 라틴어 어원인 alienatio는 ‘타자에 속하다’, 또는 ‘내가 내 아닌 것이 된다’는 뜻을 가진다. 근대 경제학에서는 상품의 양도, 사회계약론에서는 계약을 통한 자유의 위탁을 의미하기도 한다(안형관, 1999).
- 3)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당시 노동자들이 비노동(시간)의 장소에서는 소외로부터 벗어난다고 서술했다. 즉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자기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즉 삶으로 여기겠는가? 정반대다. 그의 삶은 이러한 활동이 멈출 때, 이를 테면 식탁에서, 선술집 의자에서, 잠자리에서 시작된다”(Marx, 1977, 203).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비소외의 장소들, 즉 일상생활의 장소들도 모두 소외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 4)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사실 도시 노동자의 삶에서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으며, 삶은 더욱 팍팍

- 해져 가고 있다. 하비(2014, 397)가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는 사회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시간이 많아져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추구할 경우 노동현장과 시장에서 자본이 지속적으로 노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5) 달리 말해, 르페브르에게 있어 “소외는 어떤 본질 또는 일반적 인간성으로부터 거리두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느낌의 상실, 즉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Lefebvre, 1996, 21).
 - 6) 르페브르에 의하면 이러한 생산주의는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주의적 기술관료제에 의해 추동된다. 그는 생산주의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주의에서도 공통된 프로젝트였음을 지적하고, 교환가치의 지배 및 사적 소유관계가 약화된 사회에서도 소외가 심화되고 있음은 도구적 합리성과 기술관료적 추상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공간의 생산>을 완성한 후, 국가 생산양식에 관한 연구로 옮겨갔다.

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김남희, 2002,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인간 소외,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5, 321-343.
- 김용창, 2015,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 (1): 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지, 50(4), 431-449.
- 무스토, 2011, 마르크스 소외 개념에 대한 재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8(2), 85-113 (Musto, M., 2010. Revisiting Marx's concept of alienation, *Socialism and Democracy*, 24(3), 79-101).
- 박찬국, 1995, 인간 소외의 극복에 대한 하이데거와 마르크스 사상의 비교 고찰, 철학연구, 36(1), 153-176.
- 안형관, 1990, 헤겔과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관한 연구, 현대사상연구, 1, 73-130.
- 이흥균, 2002, 사회적 압력과 소외, 학문과 사상사.
- 정문길, 1978,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
- 조정환, 2011, 인지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갈무리.
- 조항구, 1999, 루카치와 마르크스 소외론, 철학연구, 70, 263-282.
- 최병두, 2009a,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 최병두, 2009b,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르크스주의연구, 6(1), 5-51.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 정책, 한울.
- 콕스, 2009, 마르크스의 소외론, 마르크스 21, 3, 189-220; Cox, J., 1998, An introduction to Marx's theory of alienation, *International Socialism*, 79.
- 하비 (황성원 역),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동녘; Harvey, D., 2014, *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 Profile Books.
- 하트와 네그리 (정남영·윤영광 역), 2014, 공동체: 자본과 국가 너머 세상, 사월의 책; Hardt, M. and Negri, A., 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 Press.
- Amaral, C., 2015, Urban enclosure: Contemporary strategies of dispossession and reification in London's spatial production, <http://www.enhr.net/pastwinners>.
- Archibald, W.P., 2009, Marx, globalization and alienation: received and underappreciated wisdoms. *Critical Sociology*, 35(2), 151-174.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udrillard, J. 1998. *The Consumer Society*. Sage; 보드리야르(이상률 역), 2015,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 Bayirbag, M.K. and Penpecioglu, M., 2015, Urban crisis: 'Limits to governance of alienation, *Urban Studies* DOI: 10.1177/0042098015617079
- De Angelis, Massimo, 2000, Marx's theory of primitive accumulation: A suggested teinter-pretation. Working Papers 29, University of East London.
- Debord, G., 2002,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Hobgoblin: 드보르(유재홍 역), 2014,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
- Elden, S., 2001, Politics, philosophy, geography: Henri Lefebvre in recent Anglo-American scholarship. *Antipode*, 33, 809-825.
- Fischer, C.S, 1973, On urban alienations and anomie: powerlessness and social iso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311-326.
- Fraser, B., 2015, Urban alienation and cultural

- studies: Henri Lefebvre's recalibrated Marxism, in Fraser, B. (ed), *Toward an Urban Cultural Studies: Henri Lefebvre and the Humanities*, Palgrave MacMillan, London, 43–67.
- Fromm, E., 1949, *Man for Himself*, Routledge and Kegan Paul.
- Gore, A., 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London, Verso.
- Heidegger, M. 1971,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Poetry, Language, Thought*. New York: Harper and Row.
- Heidegger, M., 1993, Letter on humanism, in *Basic Writings*, Routledge.
- Jessop, B. and Sum, N., 2000, An entrepreneurial city in action: Hong Kong's emerging strategies in and for (inter)urban competition, *Urban Studies*, 37(12), 2287–2313.
- Kipfer, S., et. al., 2008, On the production of Henri Lefebvre, in Goonewardena, K., et al., (eds), *Space, Difference, Everyday Life: Reading Henri Lefebvre*,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 Lefebvre, H., 1991a[1948],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1), Verso, London.
- Lefebvre, H., 1991b[1974],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London;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로.
- Lefebvre, H., 1996,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London.
- Lefebvre, H., 2002[1961],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 2), Verso, London.
- Lefebvre, H., 2003a[1966], Preface to the study of the habitat of the pavilion. In S. Elden & E. Lebas (Eds.), *Henri Lefebvre: Key writings*, London, 121–135.
- Lefebvre, H., 2003b[1970], *The Urban Revolution*, Univ. of Minnesota Press.
- Marcuse, H., 1966, *Eros and Civilization*. Beacon Press; 마르쿠제(김인환 역), *에로스와의 문명*, 나남.
- Marx, K., 1976, *Capital*, vol.1., Penguin, Harmondworth.
- Marx, K., 1977,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London, England: Lawrence & Wishart.
- Merrifield, A., 2013,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909–22.
- Ollman, B., 1976. *Alienation: Marx's Conception of Man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H., 1978, The urbanism–alienation hypothesis: a critique,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8(2), 239–244.
- Seeman, M., 1971, The urban alienations: Some dubious theses from Marx to Marc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2), 135–143.
- Sevilla–Buitrago, A., 2015, Capitalist formations of enclosure: space and the extinction of the commons, *Antipode*, 47(4), 999–1020.
- Shields, R., 2005, *Lefebvre, Love and Struggle: Spatial Dialectics*, Routledge, London.
- Soja, E.,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 of Minnesota Press.
- Wilson, J., 2013, The devastating conquest of the lived by the conceived: the concept of abstract space in the work of Henri Lefebvre, *Space and Culture*, 16(3), 364–380.
- Yiftochel, O., Goldhabar, R., and Nuriel, R., 2009, Urban justice and recognition: affirmation and hostility, in Marcuse, P. et al.(eds), *Searching For the Just City*, Routledge, 130–143.
- Yuill, C., 2011, Forgetting and remembering alienation theory,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4: 103–119.

• 교신 : 최병두(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전화: 053-850-4155)

Correspondence : Choi, Byung-Doo(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phone: 053-850-4155)

(접수: 2016.08.01, 수정: 2016.08.15, 채택: 2016.08.25)